

명절 무료급식소 ‘올스톱’… 취약계층 “끼니 걱정”

광주 30개소 추석 연휴 휴관
폭염 대파·휴식 공간 부재
단가 4000원… 턱없이 부족
市 “운영금 확대 계획 없다”

“더운 날씨에 담소도 나누고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닳새간 문을 닫는다니 아쉽죠” 5일간의 추석 연휴기간 광주지역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고물가 시대 외식으로 밥 한끼 조차 부담인 취약계층들이 끼니 해결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최고기온 33도를 웃도는 등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위를 피해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휴식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이에 따른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관내 운영되고 있는 무료급식소는 30개소(△동구 2개소 △서구 7개소 △남구 5개소 △북구 11개소 △광산구 5개소)로 추석 연휴 기간인 14~18일 닳새간 모두 휴관한다.

도시락이나 즉석식품 등 대체식품이 지급되지만 일부 무료급식소에서는 2끼 분량, 4끼 분량을 지급하는 등 차이가 있고 충분한 물량은 아니다 보니 저소득층이 ‘배고픈 명절’을 보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루 평균 4000여명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만큼 연휴기간 무료급식소 휴관의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남구노인복지관의 대체식품은 7끼 분

량인 육개장, 부침가루, 계란, 만두, 한과, 송편을 준비했다. 하지만 한끼에 투입되는 단가가 4000원으로 측정돼 실제 한끼로 먹기에는 충분한 양은 아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휴관을 앞둔 무료급식소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 동구 동명동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은 점심을 먹기 위해 찾은 이용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하루 평균 300여명이 찾아 광주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는 무료급식소 시설이 날도 여느 때와 같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평소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이곳을 찾은 김정자(85)씨는 추석 연휴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태연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끝내 아쉬운 속마음을 드러냈다.

김 씨는 “식사뿐 아니라 친구도 만나고 담소도 나누며 하루 종일 이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며 “날이 너무 더워서 여기 아니면 갈 곳도 없는데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무료급식소 운영 시설 중 가장 방문객이 많은 남구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였다.

박길수(86)씨는 “이곳을 찾는 이용객은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이다. 평소 자녀의 도움을 받거나 여유 있는 노인들은 이곳을 찾는 이유가 없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노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복지 시설이지만, 닳새간이나 문을 닫는다니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5일 연휴 내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에 지원금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광주시는 한끼 단가를 또다시 올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무료급식소 30개소는 1년에 운영비 48억22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광주시가 80%, 각 5개 지자체가 20%를 부담한다.

지난 2022년까지 무료급식소에서 한

끼 식사에 투입되는 단가는 3000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400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식자재값이 치솟는 등 한끼 단가로 4000원이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면서 “다른 시·도의 경우 한끼 단가가 3500원인 곳도 있어 광주시가 결코 다른 지역에 비해 운영비가 적은 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휴기간 무료급식소의 휴관은 단순히 배를 채워주는 영양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고립되거나 단절된 취약계층을 향한 지역사회의 온기를 전달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잃긴다는 의미다”며 “취약계층의 생활 최전선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충분한 식사권과 대체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기자 chan.park@jnilbo.com



북구 어린이집 추석

추석을 닳새 앞둔 12일 광주 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한양, 광주 중앙공원 주주권 항소심서 일부승소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에 소송을 제기한 한양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했지만, 주주권 확인 소송서는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성주 고법판사)는 12일 1회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한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한양은 특수목적법인의 도급계약 대상자가 자신들이라며 도급계약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행정소송으로 전환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는 한양이 승소했다.

이날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 SPC의 비한양과 주주인 우빈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빈의 주식(25% 비율)을 한양에 인도하라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기존 30% 지분을 보유한 한양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최소 55% 지분

을 확보하게 된다.

오는 10월 10일 선고 예정인 SPC 주주사 케이앤지스틸과 이분(롯데건설 인수 참가)의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한양측 우호지분을 가진 케이앤지스틸이 승소하게 되면 한양은 79%의 지분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한양 관계자는 “시공권을 확보할 수 없을지라도, 다수 지분으로 시행 권한은 확보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시행 권한이라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양은 2018년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광주시가 추진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컨소시엄은 광주공원 1지구 특례사업 추진을 위해 한양(지분 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이 출자해 빛고를 중앙공원개발법인을 설립했지만, 한양파와비한양파로 나뉘며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현기 기자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전일전기(갑)와 주식회사 수석(을)은 2024년 09월 12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전남-00186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되 [갑]은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 [을]로부터 인수한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들의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회사에 의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4년 09월 13일
[갑] 주식회사 전일전기
총정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로 116, 1호
대표이사: 한 수 현
[을] 주식회사 수석
총정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로 116
대표이사: 신 수 호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해성파워텍 주식회사(이하 “갑”), 주식회사 영신(이하 “을”)과 주식회사 진보(이하 “병”)는 2024년 9월 12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과 “을”의 영업 중 일부인 각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병”이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병”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회사에 의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9월 13일
“갑” 상호: 해성파워텍 주식회사
본점: 충청남도 서산시 석림5길 31, 2층(석림동)
대표이사: 이 일 한
“을” 상호: 주식회사 영신
본점: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로 6, 301호(중동)
사내이사: 박 회 주
“병” 상호: 주식회사 진보
본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2길 16, 제상가동 제102호(병화동1가)
사내이사: 강 명 기

광고문의
팩스: 062-519-0709
直通: 062-519-0710
全南日報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돈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10-5679-0990, 062)714-2846

말하는 법 1%만 바뀌도 인생이 바뀝니다~!
성공을 부르는 **직장인 스피치**
멋지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아버지 스피치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친화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드론타임
고퀄리티(4K) 저렴한 가격 드론촬영 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호텔/펜션 학교/부동산광고·보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생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웹)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외의 주권제출공고)
금산전력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 대진이엔씨(이하 “을”이라 함)는 2024년 09월 12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의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의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4년 09월 13일
“갑” 상 호: 금산전력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00111-0082655)
소 재 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청자로 20, 2층
사내이사: 송 병 우
“을” 상 호: 주식회사 대진이엔씨 (법인등록번호: 201211-0016362)
소 재 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우산길 212-18
대표이사: 안 익 순